

## 말기암 포기 이른다... 삶의 질 높이는 치료 이뤄져야

3년 전 대장암 3기 진단 후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장모(63·강원 원주시)씨. 1년 전 암이 간으로 전이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병원에서는 “암 전이가 확인된 장기는 간밖에 없지만 다른 장기에도 번졌을 수 있고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통보했다. 장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뒤져 암 치료 방법을 찾고 있지만, 효과가 좋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할 수 없었다. 방송에서 항암에 좋다고 소개된 음식

을 먹다가 급성 간염으로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 우리나라의 암 치료 성적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환자의 평균 5년 생존율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높다. 조기 검진 활성화로 초기에 암을 발견하는 비율이 높았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포기할 수 밖에 없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이·재발 후 말기로 진행된 암은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국가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전이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8%다. 5년 생존율이 93.7%인 위암, 98.3%인 대장암도 다른 장기로 전이됐을 때는 5년 생존율이 5.8%, 18.2%로 푹 떨어진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때, 그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단순 연명(생명을 연장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암세포를 없애는 게 목적인 기존의 치료법 중에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수많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게 된

다. 과학적으로 치료효과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민간요법은 대부분 치료효과는 없고 값이 비싸다. 결국 암환자는 건강과 비용을 모두 잃게 된다. 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몸에 퍼진 암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도 적극적으로

써 통증을 관리하고, 암에 맞설 수 있도록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을 도입하는 추세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이종두 전이재발암병원 병원장은 “말기암의 표준치료 성공률이 낮다면 적극적으로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론적인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다양한 치료법을 조합하면 말기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전이재발암병원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치료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환자가 의료진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 병원에서는 흔한 일이다.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 “전이·재발 암 환자도 희망 갖도록 치료”

인터뷰 | 이종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전이재발암병원장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거나 재발했을 때 치료성공률은 10~20% 정도이지만 그렇다고 환자에게 ‘삶을 포기하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암세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제성모병원 전이재발암병원 이종두 병원장(사진)은 전이재발암 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항암, 방사선 같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치료와 더불어 암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환자의 체력과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치료도 병행한다.

암환자들은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완대체요법에도 매달린다. 터무니 없는 효과를 앞세워 암환자를 두 번 울리는 것들도 있지만 효과를 인정받은 것도 적지 않다. 이 병원장은 “반복적 실험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보여야 효과로 인정하는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의학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검증되지 않았다고 치료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암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굳이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보완대체요법은 1차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기존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은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다.

이 병원장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명상, 한방 치료 등 각각 효과를 가진 방법을 모두 조합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우리 병원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

## 암 이기는 힘 키우기 위해 한방·대체요법도 적극 도입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전이재발암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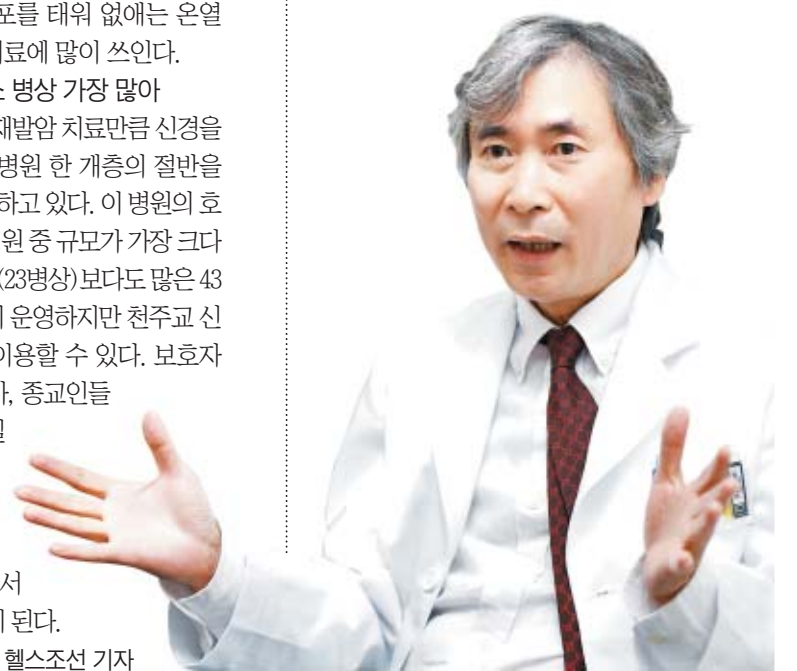
고통 없고 몸 상하지 않게 하는 의술 목표 가정의학·정신건강·영양학 등 통합 진료 방사선 치료도 적극 시행... 환자 통증 줄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전이재발암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거나 재발해 더 이상 치료법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다. 서양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요법을 모두 동원해 암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유지를 목표로 만들어진 병원이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치료법은 모두 활용한다. 지난 2월 오픈하면서 내진 병원의 철학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치료 ▲환자의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치료 ▲고통 없는 치료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인천가톨릭의료원은 이미 2011년부터 인천성모병원에서 전이재발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성모병원 전이재발암병원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

이 가장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증 덜고 면역력 키우는 보완대체요법 병행 전이재발암병원은 통합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같이 암을 직접 치료하는 진료과 외에도 면역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학과, 환자의 불안감을 없애고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는 정신건강의학과, 뭉친 기혈을 풀어 몸의 재생능력을 보완하는 한의학, 음식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영양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료와 치료에 참여한다. 암세포 제거를 위한 항암·방사선 치료는 혈소판이나 백혈구 등 면역성분도 함께 손상시키기 때문에 치료 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때 뜸, 침, 한약재 등을 이용한 한방치료를 받거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으면 면역력이 회복돼 건강상태도 좋아질 수 있다. 운동치료로 척추를 교정하면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회복되고 다도(茶道), 명상, 호흡법 등을 익히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효과가 있다. 이런 치료법은 암을 이기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보완적인 치료법으로 서서히 인정을 받고 있다. 국제성모병원 전이재발암병원은 일반 병

원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보완대체 치료법 중 어느 정도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들을 모두 동원한다. 무분별한 민간요법과는 다르다. 국제성모병원 기선암 기획실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우리가 하는 통합치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흑세무민하는 치료와는 다르다”며 “데이터가 적어 과학적인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한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편하게 해주는 방사선 치료도 적극적 암이 척추나 골반에 전이되면 통증이 심하고 신경까지 침범하면 마비가 돼 움직이지 못해 욕창이 생기기도 한다. 암이 커져 혈관을 누르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부종이 생기거나 그 자체가 다른 장기를 압박할 수도 있다. 말기 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환자가 아무리 치료를 원해도 의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통증만 줄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암환자는 암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암 부작용이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증, 영양결핍 같은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국제성모병원은 이런 상태의 환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다. 전이재발암병원 이종두 병원장은 “말기 암이라고 해도 뼈에 전이된 암을 없애거나 암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는 국소 방사선 치료를 하면 환자의 통증이 줄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암세포에 고주파를 흘려 보내 암세포를 태워 없애는 온열치료기도 전이재발암 치료에 많이 쓰인다. ◇대학병원 중 호스피스 병상 가장 많아 국제성모병원이 전이재발암 치료만큼 신경을 쓰는 것이 호스피스다. 병원 한 개층의 절반을 호스피스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병원의 호스피스 병상 수는 대학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 서울성모병원(23병상)보다도 많은 43병상이다.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지만 전주교신자가 아니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 대신 사회사업사, 간호사, 종교인들 이 환자를 돌본다. 움직일 수 있는 환자는 다인실에서 보호자 없이 지내다가 연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1인실에서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게 된다. 강경훈 헬스조선 기자



### 암환자와 가족 위한 전문 프로그램 헬스조선 ‘쉽 그리고 값’ 내달 3일 올해 마지막 캠프

“잃었던 웃음을 되찾고 행복이라는 감정과 치유 에너지를 나눴다.” 헬스조선 ‘면역력을 높이는 암극복 캠프-쉽 그리고 값’ 참가자들은 이 구동성으로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암 투병에 지친 환자와 가족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11월 3~6일(3박 4일)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개최된다.

가장 만족한 부분은 경험 많은 힐링멘토가 전하는 면역력을 높이는 특강이다. ▷황성주 사랑의병원 병원장의 ‘통합의학적 암 케어 치료법’ ▷홍현표 헬스조선 취재본부장(대장암 3기 완치)의 ‘암 다스리는 법’ ▷이민선 대한카이로프랙티컬협회 회장의 ‘면역력 높이는 카이로프랙티컬’ 시술 ▷유하진 명상강사(사망받는

약국 약국장)의 ‘스트레스 이기는 명상’ ▷박하일 강사(간암 완치)의 웃음치료 등을 통해 검증된 암투병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가을꽃이 만발한 천리포수목원의 숲과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자연의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다. ●문의·신청: 1544-1984(헬스조선 문화사업팀) 강미숙 헬스조선 기자

**실전에서 입이 안 떨어지는 자, 누구라도 좋다!**

**10년째 안 되는 영어 말문, 나는 한국에서 튼다!**

6개월 만에 영어 벼랑이 영어 수다쟁이로 거듭나는 **회일쌤의 특급.전략**

정회원 지원 | 값 13,800원 | 문의 02-724-7632 북림리뷰